

# 라오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5.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3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I. 일반개황

면적	237천 Km <sup>2</sup>	G D P	58억 달러 (2009년)
인구	680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853달러 (2009년)
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제	통화단위	Kip(K)
대외정책	비동맹 중립	환율 (달러당)	8,516 (2009년 평균)

-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산악지대가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853달러, 인구 680만의 전통적 저소득 농업국임.
- 쌀 생산 중심의 농림수산업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의 약 80%, 수입의 85%가 태국과 중국,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어 자연 재해와 같은 외부요인이나 교역국가의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최근 5년간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의 성장으로 7%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해외 원조에 의존한 인프라 건설 등이 성장의 주된 요인이며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규모가 과중한 편으로 외채상환능력이 부족한 편임.
- 라오인민혁명당(LPRP)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대외 개방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2010년에도 라오스의 통치체제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f</sup>
경제성장률	8.7	7.8	7.2	6.0	7.0
재정수지 / GDP	-3.8	-2.8	-2.7	-3.2	-2.9
소비자물가상승률	6.8	4.5	7.6	0.0	6.2

자료: IMF, EIU.

#### □ 세계경기 침체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성장 유지

- 라오스는 광물 수출과 인프라 건설 호조, 광공업 부문의 성장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구리, 금 등 광물의 수출 호조와 도로, 다리, 전력시설 등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 성장, 인프라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 베트남 등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와 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6%로 둔화되었음.
- 하지만 라오스는 다른 동아시아 수출주도형 국가들에 비해 국제 무역의존도가 높지 않고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동남아시아 올림픽(SEA Games)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비엔티안(Vientiane) 수도 지정 4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정부 지출로 국내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경기침체의 충격이 완화되었음.

- 국제 광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입 증가, 2009년 경기침체로 지연되었던 Nam Theun 1 및 Nam Ou 프로젝트 등 수출 목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재개, 광산 등 천연 자원개발 분야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증가 및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라오스는 2010년 전년 대비 상승한 약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라오스는 세수 기반 부족, 높은 외채 이자 부담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2004년 이래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 세율 인상 등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2010년에는 신 부가가치세법과 사치세 도입, 태국 앞 전력 수출 수입으로 재정수입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 광물가격 상승 역시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9%로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 신 부가가치세법은 연간 이익이 4억 킵(kip)을 초과하는 수입업체 또는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재화에 대해 5~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라오스 정부는 2015년 ASEAN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에 대비하여 부가가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소비자물가 전년 수준 유지**

- 식료품 가격, 유가 상승 및 대형 건설 프로젝트 증가로 인한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년 만에 최고인 전년 대비 7.6%를 기록하였음.
- 2009년 들어 국제 식료품 가격 및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4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0.2%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최초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크게 낮아진 연평균 0.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국내 수요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아 6%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외부요인의 영향이 큰 취약한 경제 구조

- 최근 의류와 식품가공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업구조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아직 농림수산업이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쌀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에 따라 자연 재해와 같은 외부요인에 쉽게 타격을 받는 취약한 구조임.
- 또한 수출의 약 67%, 수입의 76%를 태국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음.
-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지만 해외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한 인프라 건설 등이 그 주된 요인으로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움.

### 나. 성장 잠재력

#### □ 산림자원 및 수자원, 광물자원 풍부

- 라오스는 전체 면적의 약 4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한 편임. 또한 태국, 미얀마와의 국경지역에 메콩강이 위치하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해 수력발전이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주석, 납, 구리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해 총 수출의 약 53%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원이 되고 있음.

□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

- 관광산업은 라오스의 주요 외화획득원으로, 2009년 라오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2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2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을 기록하였음.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 관광산업 침체와 라오스로 들어가는 관문인 태국의 정정 불안에도 불구하고 방문 관광객은 증가세를 보였음.
- 특히 2009년에는 제25회 동남아시아게임(SEA Games)이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면서 베트남 및 태국 관광객이 증가하여 유럽과 미국인 관광객 부족분을 채웠음.
- 2015년까지 연간 3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라오스의 관광산업은 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관광객은 비엔티안, 참파삭(Champassak),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등 5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편인데, 정부는 관광 인프라 구축, 마케팅 전략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들을 다양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환경친화적인 관광지 개발 목표를 세우고 이들 관광지의 관리 및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 라오스 내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4년 말 미국으로부터 NTR(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무역자유화 작업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지적재산권, 관세 등 교역 관련법을 WTO의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2010년말까지 WTO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2010년 4월 총리 주재 회의에서 제7차 5개년 사회경제개발 계획(2011~2015)을 승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졌음.
- 2009년 상반기까지 세계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외국인투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수력발전 프로젝트 및 광물산업 개발에 외화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의 급격한 변동을 제한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라오스가 사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사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1)
-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투자 관련 정보를 적절히 제공해야 하며, 보다 숙련된 노동력을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라오스의 경제 성장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증가하는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 장기 도전과제임.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sup>f</sup>
경 상 수 지	50	107	-62	-25	..
경 상 수 지 / GDP	1.4	2.6	-1.2	-0.5	..
상 품 수 지	-235	-145	-226	-200	..
수 출	810	922	1,161	1,103	..
수 입	1,045	1,067	1,387	703	..
외 환 보 유 액	328	533	629	703	..
총 외 채 잔 액	3,501	4,301	5,144	5,584	5,847
총외채잔액/GDP	97.9	103.1	95.7	97.6	96.6
D. S. R.	13.9	12.7	10.1	13.6	15.0

자료: IFS, EIU

1) Asian Development Outlook(ADB, 2010)

□ 상품수지 적자 규모 축소

- 주요 수출국의 수요 증가로 인한 구리, 금 등 광물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목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2008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통적으로 국내 소비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건설자재, 기계장비 및 연료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입증가폭이 수출증가폭을 앞지르며 2008년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둔화 및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와 금의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최초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지연으로 인해 건설자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수요도 함께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되었음.

□ 경상수지 적자폭 완화

-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입 증가로 인한 서비스수지 흑자와 해외 원조에 힘입어 2007년에는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8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음.
- 2009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규모 축소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0.5% 수준으로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되었음.

□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해외원조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말 외환보유액은 약 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음.
- 하지만 해외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지원이 차질을 빚을 경우 외환보유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킵(kip)화 안정세 지속**

- 라오스는 1988년부터 관리형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킵화 환율은 2008년 미달러화 대비 평균 9.8% 절상된 후 2009년에도 0.5%만큼 소폭 절상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킵화의 강세기조는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달러화에 대한 낮은 의존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켜 외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는 킵화의 약세 요인이며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 또한 적정수준의 평가절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 **외채상환능력 낮은 편**

- 라오스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으로, 이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 공산권의 원조 비중이 컸으나 현재는 일본, 호주,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으로부터의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9년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GDP의 97.6% 규모로,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 규모가 과중하고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부족한 편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라오인민혁명당(LPRP)의 안정된 정치기반 유지**

- 라오스는 경제적으로는 개혁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이 의회와 정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재체제 국가임.
-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행정수반인 총리, 국회인 국민회의 의장 등 정부 요직이 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원을 겸임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치적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지난 2006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71명의 초선의원과 44명의 재선의원이 선출되었는데 대부분 라오인민혁명당 소속이었으며, 2006년 6월 선거에서 쉰말리 사야손 대통령과 부아손 부파반 총리가 당선되며 지배체제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통치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음.
- 라오인민혁명당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대외 개방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2010년에도 라오스의 통치체제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 2. 사회동향

### □ 태국 거주 몽(Hmong)족의 국내 강제 송환

- 라오스와 태국이 라오스 공산정권을 피해 태국으로 밀입국한 몽족의 강제 송환에 합의하면서 2009년 12월 몽족 8,000여명 중 4,000명 이상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음.
- \* 라오스 소수민족인 몽족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당시 라오스 정부를 지지하여 베트남전을 수행 중인 미국을 지원했으나, 1975년 라오스 정권이 공산당으로 넘어가자 탄압이 두려워 태국으로 탈출해 태국 북부지방의 펜처분(Phetchabun) 지역에서 집단 거주해 왔음.
- 그동안 세계 인권단체들은 태국 정부가 몽족에게 정식 난민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였음.
- 국제기구 및 세계 인권단체들은 몽족이 라오스 정권의 탄압을 피해 밀입국한 것이므로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차별과 고문으로 인권이 유린당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

- 라오스는 2009년 12월 제25회 동남아시아게임(SEA Games) 개최를 통해 국가이미지 향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동 올림픽 개최를 통해 최빈국의 입장에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었으며, 준비 과정에서 국가 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음.
- 한편, 라오스 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독재체제하의 인권 문제, 지나친 해외 원조 의존도, 도시와 지방간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표면화되며 라오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기도 했음.

3. 국제관계

□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인접한 공산국가인 베트남과 깊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국,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09년말까지 2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라오스의 최대 투자국으로, 주로 광산개발, 수력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라오스 또한 베트남에 천연자원 개발을 허가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태국과는 몽족의 강제송환 문제로 인해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태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
- 또한 라오스는 지역, 국제사회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ASEAN 국가와의 무역 증진을 추진하여 지역 번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주변국들과 국제기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국제시장평가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2009. 3)	E (2007. 2)
OECD	7등급 (2010. 4)	7등급 (2009. 4)

- 라오스는 아직 소득수준이 낮고 외채부담이 높으며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도도 낮아 OECD 최하위 등급인 7등급을 받고 있으며, S&P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있음.

###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4.6.22 수교, 1975.7.25 단교, 1995.10.25 재수교  
(북한과는 1974.6.24)

-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6), 투자보장협정('96),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06)

####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라오스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라오스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56	53	56	자동차, 자동차부품, 정전기기
수 입	70	53	18	동광, 목재류, 동제품
합 계	126	106	74	

자료: 한국무역협회

- 라오스가 아시아의 신흥 투자처이자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 라오스 교역과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

- 라오스와의 교역 규모는 2007년 1억 2,599만 달러, 2008년 1억 615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대 라오스 수입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하면서 교역규모는 7,329만 달러에 그쳤음.
- 우리기업의 대 라오스 해외직접투자도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09년말 현재 109건, 1억 4,158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는 라오스의 4대 투자국이 되었음.

□ 제9위의 EDCF 지원대상국

- 라오스는 우리나라의 제9위 EDCF 지원 국가로 2009년말 승인 기준 총 8건, 1,622억 원을 지원하였음. 주요 지원 사업은 송전사업, 도로 개선사업,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등임.

VI. 종합 의견

- 라오스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의 성장으로 7%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2009년에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 베트남 등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와 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6%로 둔화되었음.
- 국제 광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입 증가, 2009년 경기침체로 지연되었던 수력발전 프로젝트 재개, 광산 등 천연 자원개발 분야의 외국인투자 자금 유입 증가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라오스는 2010년 전년 대비 상승한 약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에는 신 부가가치세법과 사치세 도입, 태국 앞 전력 수출 수입 증가, 국제 광물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수입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2.9%로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는 국내 수요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외국인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아 2010년 6%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라오인민혁명당(LPRP)은 시장경제체제 도입, 대외 개방 등을 통한 경제 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안정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2010년에도 라오스의 통치체제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 2009년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GDP의 97.6% 규모로,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 규모가 과중하고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부족한 편임.

전문연구원 이 세 린 (☎02-3779-5655)  
E-mail: [srlee@koreaexim.go.kr](mailto:srlee@koreaexim.go.kr)